

현대성우메탈 다시 투쟁!

새롭게 벌어지는 투쟁!

현대성우메탈지회가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지회는 올해 상반기에 외주화 저지, 강제 전환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본사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지부는 현대성우메탈지회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 임시대대를 현대성우메탈 앞에서 야외 투쟁 대의원대회로 진행하고 총파업 본사 상경투쟁까지 벌였다. 지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노조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124일 동안의 천막농성과 본사 투쟁 등을 통해 현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일단락됐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강제전환배치를 거부했던 간부 3명에게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체불로 고소했지만 총주검찰은 아직까지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1공장 외주화, 교대제 개편 및 임금개편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1공장을 외주화 하는 방안과 교대제를 현재의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임금을 96% 보전한다고 했지만, 각 개인별로 작년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96%를 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안에 동의한 것이다. 작년에 연장근로를 많이 한 근속5년차가 연장근로를 적게 한 근속10년차 보다 높은 시급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노조간 차별 투쟁으로 돌파한다!

개인별로 임금차별을 만드는 합의도 문제이지만, 한국노총은 더 황당하게 그마저도 금속노조에 대한 추가 차별을 두겠다고 합의했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임금보전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최저 511시간~최고 520시간 보장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최저 490시간~최고 520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 작년에 연장근로를 똑같이 470시간 한 노동자가 있다면, 한국노총 소속이면 511시간으로 보장하고, 금속노조 소속이면 490시간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인 노조간 차별이다. 금속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노골적인 차별 합의안을 만든 것이다.

지회는 강제 전환배치 임금체불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수) 11시 총주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또한 개인별, 노조간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 현장투쟁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악의적인 노조간 차별에 대해 끝까지 물러섬없이 맞서 투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지부의 모든 지회들이 현대성우메탈지회 투쟁을 함께 했다. 다시 시작된 투쟁에 다시 한 번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자.

현대모비스 당당하게 쟁의행위 진행중!

우리 지부의 막내 지회인 현대모비스총주지회가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회는 12월 10일 충북지노위에서 조정이 중지된 후 11일부터 잔업, 특근 거부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총주 모비스는 한국노총과 7일 먼저 교섭을 타결했다. 한국노총은 투쟁 한번 없이 사측의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모비스는 한국노총을 이용해 먼저 타결하면, 금속노조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총주지회 조합원들은 투쟁을 선택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5%라는 압도적인 가결을 만들었고, 당당하게 잔업, 특근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는 잔업, 특근 거부에 더해 파업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쟁의지침에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하고 있다. 모비스의 길들이기를 뛰어넘어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